

##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 A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Happiness in Childcare Teachers

조한숙(Han Suk Cho)<sup>1\*</sup>, 이성복(Sung Bok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care, The Calvin Univ. of Korea, <sup>2</sup>Department of childcare, The Calvin Univ. of Korea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gratitude disposi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231 Childcare in Seoul. The statistics program used to achieve the purpose was SPSS/PC+18.0. The statistics methods applied we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from happiness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e had an affect on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hese effects are mediated in part by the control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Third, gratitude disposition affects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hese effects are mediated in part by the gratitude disposition show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positional gratitude and cognitive flexi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for childcare teachers.

---

▲주제어(Key words) : 보육교사(Childcare teacher),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행복감(Happiness), 대인관계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 감사성향(Gratitude disposition)

#### I.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안락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이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실상 행복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용어 자체에 매우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H. Kim 2014).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것으로서 행복은 개인마다 주관적이며 삶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개인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행복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M. Seligman 2006).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가 불행하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교사의 행복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

---

\* Corresponding Author : Han suk Cho, Department of child, Calvin University, Mabuk-dong, Giheung-gu, Gyeonggi. 169-11, Korea, tel: +82-31-270-8977, E-mail: hscho31@hanmail.net

가 있다(C. Barker & B. Martin, 2009).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가 가정 밖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이자 그들의 전인적 발달 및 성장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이다(J. Yeom, M. Lee, H. Cho, & H. Kim, 2011). 더구나 유아는 유아교사의 사소한 언어, 행동, 습관 등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H. Jung, 2005; H. Lee 2001). K. Van Petegem, B. P. M. Creemers, Y. Rossel, and A. Aelterman(2005)은 교사의 정서가 학생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교사의 바람직한 정서 함양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H. Kwak(2011) 역시 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 즉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아교육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교사의 긍정적 정서상태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행복감은 교사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H. Hwang & S. Hong, 2013)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는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필수적 요소이며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어린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그들의 육구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무엇보다 중요한 인적 자원인 보육교사는 중요한 변인이다(S. Cho & J. Lee, 2010). 그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무엇보다 인적자원인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이러한 교사의 행동특성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과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직무에 보다 적극적이며, 만족하며, 열정을 가지고 유아를 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Y. Choi & K. Lee, 2012)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에 대한 고찰은 행복한 유아의 양성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 Kim 2014).

특히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와 함께 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자로서 인간 본질과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은 긍정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에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래된 개념이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와 강점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요인들을 측정하고 개발하여 스트레스 요인들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전환 하려는 새로운 학문이다(S. Park 2013). 최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개념은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기능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의 정신건강이 주관적 웰빙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혹은 결정요소일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은 효율적 기능을 유발하는 심리적 자원을 의미하는 바(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n, 2007),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반영하는 개념이 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차원인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효능감(self-efficacy), 복원력(resilience)은 각각의 하위 요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통합된 개념으로서도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J. B. Avey, B. J. Avolio, & F. Luthans, 2011). 이는 안정적인 심리적 개념인 특질이 아니라 상태유사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논리는 일종의 전제로서 긍정심리자본이 환경이나 특별한 개입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F. Luthans, J. B. Avey, B. J. Avolio, & S. Peterson, 2010).

즉,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누구인가(who you are)'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써 '당신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즉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who you are becoming. your best self)'으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의 역할을 강조한다(F. Luthans & C. Youssef, 2004).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사의 보다 높은 긍정심리자본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J. B. Avey et al.(2011)은 긍정심리자본의 선행변수로서 조직 내 진정한 리더쉽, 자기존중감, 직무복잡성 등을 확인하였고, B. Li et al.(2014)는 선행변수로서 사회적 지지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변수로 개인의 행복감을 알아보고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은 두 개의 측면인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인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를 일컫는 것이라면 그 중 하나는 감사성향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인 정서적 안녕감은 즐거움, 행복 등과 같은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며, 정서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원기가 넘치고,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D. C. Shin & D. M. Johnson, 1978). 그런 점에서 유쾌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대인관계이다. W. C. Compton(2007)은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행복감을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대인관계는 한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둘러싼 주변사람들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Y. Park et al.(2000)은 인간관계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K. Jeon and T. Jeong(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족관계, 친구 및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Y. Heo(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의 경우가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J. Veroff, E. Douvan, & R. A. Kulka, 1981), 심지어는 우울, 불안, 성격장애 및 신체화 증상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Lee 2013). 이렇게 대인관계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 요인에 대한 탐색(J. Shin 2007),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J. Koo & U. Kim, 2006; K. Park 2005)등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 이를 통해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N. Han & D. Lee, 2010). 이런 대인관계의 유능성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인 행복이 달라질 것이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 행동 반응을 의미하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의미가 타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신념이 관계 안에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D. K. Laspley & J. Edgerton,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과 행복감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의 등장으로 인간의 긍정적 상태를 추구하고 행복플로리시 한 삶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H. Hwang & J. Tak, 2014) 감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C. Peterson and M. Seligman(2004)은 감사를 선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하며 초월의 미덕에 속하는 성격강점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며 좌절, 어려움 속에서 밝은 면을 바라봄으로써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감사는 현재의 순간 오늘의 삶을 인정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감사의 특성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J. Ham, B. Byeon, & S. Cheon, 2011). 감사가 생활 속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성찰 능력이 높으며(R. Emmons & M. McCullough, 2003), 타인의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 A. Emmons 2004).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A. M. Wood, J. Maltby, R. Gillett, P. A. Linley, & S. Joseph, 2008),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극복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강화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감사성향을 높이는 것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감사하기를 실시하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Y. Choi 2009), 감사

는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방식으로 활용(Y. Lim 2010)될 것이다.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S. Han 2013; G. Hong & H. Jeong, 2013)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으로 하나로 감사성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행복감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육교사에게 적용하여 행복감이 높은 교사의 특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교사 자신을 교직수행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직무만족정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행복한 유아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 Hwang 2013), 직무만족도와 회복탄력성(H. Hwang, J. Tak, & S. Hong, 2013), 자아존중감(J. Han 2013), 교수몰입(Y. Go, S. Lee, & S. Sim, 2014), 긍정성(H. Hwang, H. Gang, & J. Tak, 2014)은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정서자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기에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점과 많은 연구들이 행복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보육교사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감사성향의 인식도와 관련성을 살펴보고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감사성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감사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행복감을 증진함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는 것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감사성향을 높임

으로써 행복감이 증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유능성에 의해 매개되는가?
-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성향에 의해 매개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240(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보육교사의 연령은 40대 91명(39.4%), 30대 80명(34.6%), 20대 60명(26.0%)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상 109명(47.2%)이 가장 많았다. 경력은 3년 미만 66명(28.6%), 3년 이상-6년 미만 64명(27.7%)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시설유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68명(29.4%), 가정어린이집 67명(29.0%), 민간, 직장어린이집 48명(20.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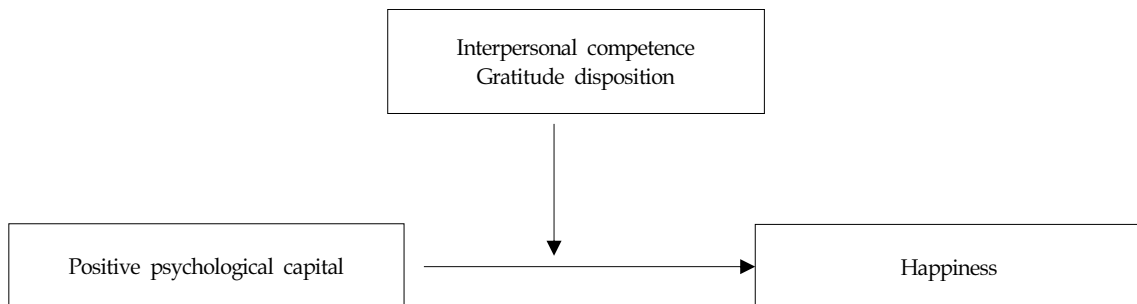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1)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Age	twenty	60	26.0
	thirty	80	34.6
	forty	91	39.4
Teac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4	14.7
	college	88	38.1
	university	109	47.2
Teacher's Career	less than 3 years	66	28.6
	3 -less than 6 years	64	27.7
	6 -less than 9 years	42	18.2
	9 years over	59	25.5
Types of childcare centers	Public	68	29.4
	private	48	20.8
	workplace	48	20.8
	home	67	29.0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1) 긍정심리자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측정하기 위해 F. Luthans, C. M. Youssef, and B. J Avolio(2007)의 기존 측정도구를 H. Han(2013)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 4개의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하위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며, '희망'은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움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동기들이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 R. Snyder et al., 1996). '낙관주의'는 여러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도전 하고자 하는 신념이며(H. Yoo 2005), '탄력성'은 역경과 장애 또는 갈등, 실패, 심지어 긍정적인 사건들, 진전, 증가된 책임감으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는 또는 급속히 회복 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F. Luthans 2002).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  $\alpha$ 계수는 자기효능감 .80, 희망 .86, 낙관주의 .81, 탄력성 .81, 긍정심리자본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2) 교사행복감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 Argyle(2001)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감 척도를 S. Kwon(2011)이 변안한 것을 H. Kim(201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의 3개의 하위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외적행복은 나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하며 내적행복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행복은 내적통제력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  $\alpha$ 계수는 외적행복 .92, 내적행복 .90, 자기조절 행복 .86 교사행복감 전체는 .96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유능성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Reis(1988)가 제작한 대인유능성 척도를 N. Han(200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배려, 갈등관리, 자기개방의 5개의 하위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한국판에서는 자기개방의 3문항이 제외되는 이는 소극적 자기개방만을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유능성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지각하

기 때문(N. Han & D. Lee, 2010)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개방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2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관계형성'은 낯선 사람과의 모임이나 만남에서 관계 및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이며, '권리주장'은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쾌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이다. '타인배려'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축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이며, '갈등관리'는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대처 및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유능함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  $\alpha$ 계수는 .관계형성 .85, 권리주장 .83, 타인배려 .81, 갈등관리 .80,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 4) 감사성향

보육교사의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M. E. McCullough, R. Tsang, and J. Emmons(2002)이 개발하고, S. Kwon, K. Kim, and H. Lee(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CQ-6)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감사 정서상태의 일반화된 경향성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  $\alpha$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보육교사 30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검사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국·공립 보육시설 5곳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의 이해도 및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2) 본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조사에 앞서 협조 우편 메일 발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의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의 활용 등을 안내하였으며 연구참여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240(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 유능성 및 감사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검증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sobel-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 1.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31)

Variables	sub-variables (items)	Min-Max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5	2.42~5.00	3.74(.44)
Happiness	1~5	1.91~5.00	3.71(.57)
Interpersonal competence	1~5	1.57~4.50	3.24(.47)
Gratitude disposition	1~7	3.00~5.00	5.68(.91)

한 대인관계 유능성 및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 $r = .64, p < .001$ ), 대인관계유능성( $r = .48, p < .001$ ), 감사성향( $r = .46, p < .001$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각 변인들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견해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세 가지 회귀방정식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 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모두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이 완전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부분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3단계 절차에 따라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은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ta = .64^{***} p < .001$ ). 1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에 대해 41%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2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 $\beta = .48,^{***} p < .001$ )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23%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31)

	1.	2.	3.	4.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2. Happiness	.64 <sup>***</sup>	1		
3. Interpersonal competence	.48 <sup>***</sup>	.47 <sup>***</sup>	1	
4. Gratitude disposition	.46 <sup>***</sup>	.64 <sup>***</sup>	.28 <sup>***</sup>	1

<sup>\*\*\*</sup>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childca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er's happiness. (N=231)

	variables	B	$\beta$	$R^2$	adj $R^2$	F	
1	independent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papital →Happiness	.81	.64 <sup>***</sup>	.41	.41	159.20 <sup>***</sup>
2	independent →media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50	.48 <sup>***</sup>	.23	.22	68.13 <sup>***</sup>
3	independent mediate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Happiness	.68 .26	.54 <sup>***</sup> .22 <sup>***</sup>	.45	.44	91.61 <sup>***</sup>

<sup>\*\*\*</sup>  $p < .001$

모형에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유능성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 = .22, ***p<.001$ ), 설명력은 45%이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대인관계유능성이 모두 유의미하여, 대인관계유능성은 부분매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분매개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과 같다.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sobel-test의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데(R. M. Baron & D. A, Kenny, 1986) test 통계량이 4.4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2>과 같이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유능성이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 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대인관계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이어서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은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ta = .64, ***p<.001$ ). 그리고 2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감사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ta = .46, ***p<.001$ ).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감사성향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 = .43, **p<.001$ ), 3단계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감사성향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감사성향은 부분매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분매개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test 통계량이 5.7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3>과 같이 이러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매개 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감사성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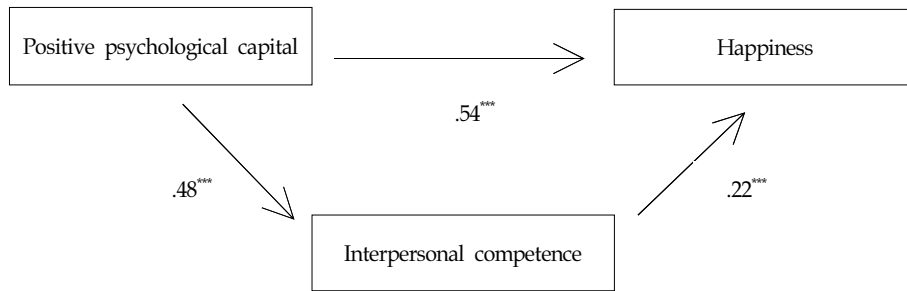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between childca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er's happiness.

			B	$\beta$	$R^2$	adj $R^2$	F
1	independent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81	.64***	.41	.41	159.20***
2	independent →media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atitude disposition	.94	.46***	.21	.20	60.82**
3	independent mediate →depen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atitude disposition →Happiness	.56 .27	.42*** .43***	.56	.55	143.83***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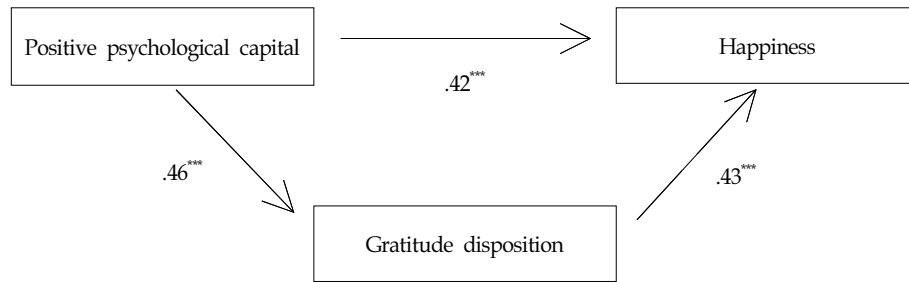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 대인관계유능성,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긍정심리가 높으면 행복감과 대인관계유능성, 감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감사성향과 대인관계유능성, 행복감이 높으면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과 행복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은 긍정적인 삶과 관련 있고(C. R. Snyder 2000), 낙관주의는 행복의 결정요인이며(W. C. Compton 2007), 낙관주의는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탄력성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였다(M. E. P. Seligman 2006). 즉,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교사 또는 영유아들과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인관계유능성 점수와 교사로서의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행복한 삶이라는 선행연구(K. Han 2002)와 맥락을 같이한다.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이 높고 대인관계가 유연하다는 연구(E. McCullough, R. Tsang, and J. Emmons, 2002)와 감사성향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국내 선행 연구(H. Noh 2008)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감사를 많이 느낄수록 높은 인지적·정서적 행복을 경험하며 핵심적인 논리적 자원들이 풍부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다는 선행연구(J. Noh & M. Lee, 2005)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대인관계유능성이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대인관계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강화시키며, 대인관계유능성 또한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의 중요성에 대해 확장 및 축적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제시한 B. L. Fredrickson(2002)에 의하면, 사람들이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일시적인 사고기능과 행동양식이 확장되며, 그 결과로 얻어진 학습 경험을 통해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축적하게 된다고 했다. 확장축적의 경험은 정서상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했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정서에 의해 야기된 불안, 스트레스, 슬픔 등의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 Kwon 2009).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밝힌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인류가 가치롭게 추구하는 미덕과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 특성은 개인이나 집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H. Lee 2008; M. E. P. Seligman 2006; M. E. P. Seligman et al., 2004; B. A. Wright & S. J. Lopez, 2002). 또한 긍정심리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일과 학습의 성취와 만족, 몰입, 스트레스 대응 등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질적으로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Csikszentmihalyi 1990; E. Diener & M. Seligman, 2002; B. L. Fredrickson 2002).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교사집단이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보다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Y. Kim

2012; E. Kim 2015; J. Lee 2014; H. Jeong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인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역할수행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아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K. Lee et al., 2012),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행복으로 충만한 유아교사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며, 유아들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과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Y. Choi & K. Lee, 2009; H. Kwak 2011)는 연구를 통해 결국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행복은 교사의 개인적인 삶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Y. Hark 2012). 따라서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심도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능력은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자원이 된다(K. S. Rook 1984).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연구되었다(J. Koo & U. Kim, 2006; K. Park, G. Park, & S. Yoon, 2005).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S. Kim(2012)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효율성은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관련 요인을 분석한 F. Cenkseven-Önder and M. Sari(2009) 역시 교사의 낮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부정적인 대인관계,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교사의 삶의 질과 만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낮추고 더 나아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S. Kook(2001)는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행복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유아교사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형성한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역경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위안을 구하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H. Cho et al., 2010)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아나간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행복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가 행복에 매우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간에 부분 매개하여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감사성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며, 감사성향이 높은 보육교사 역시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감사성향을 매개로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감사성향이 높은 교사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J. Han, 2015)와 감사성향이 높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 정서를 가지고 삶의 만족을 더 높게 지각하여 행복과의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J. Noh & M. Lee, 2005)를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 M. Wood, J. Froh, and A. Geraghty(2010)에 의하면, 최근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반복적인 감사표현을 통해 감사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는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방법 중 한가지로 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향(life orientation)'으로서 행복을 유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꾸준하면서도 단순한 감사를 통해 개인의 특질로서의 감사성향을 키워 나감으로써 행복을 향상시킨다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감사성향은 긍정정서를 증진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가진 성격장점이므로(Y. Kim & H. Lee, 2012; E. McCullough, R. Tsang, & J. Emmons, 2002) 서로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연구한 R. A. Emmons(2007)는 감사는 자신이 살아있고 깨어있음을 느끼도록 돕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의 이러한 측면이 행복감과 연결되어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적 측면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감사성향과 행복감이 서로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성향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낙관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S. Kwon 2011; E. 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향이 매개할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감사성향은 긍정적 경험을 음미하고 자기반성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변인이므로(M. Seligman 2011) 이러한 특성이 즐거운 삶, 의미있는 삶, 몰입하는 삶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감사성향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자원이며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 McCullough et al., 2002). 게다가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공감을 잘 하며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종합해볼 때, 보육교사는 생활 속에서 감사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삶에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감사의 긍정적인 역할에 기반해 볼 때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감사성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감사성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는 멘토링 제도나 상담센터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적 차원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역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과 매개변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인관계 유능성과 감사성향은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충분히 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을 위한 대인관계유능성 및 감사성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 전원이 일부지역의 보육교사 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넷째, 향후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과 보육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치원이나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군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2nd ed.). East Sussex, England: Routledge.
- Avey, J. B., Avolio, B. J., & Luthans, F. (2011). Experimentally analyzing the impact of leader positivity on follower positivity and performance. *The Leadership Quarterly*, 22, 282-294.
- Barker, C., & Martin, B. (2009). Dilemmas in teaching happiness. *Journal of University Teaching & Learning Practice*, 6, 1-14.
- Barki, H., & Hartwick, J. (2004). Conceptualizing the construct of interperson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5(3), 216-2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Cenkseven-Önder, F., & Sari, M. (2009). The quality of school life and burnout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eacher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9(3), 1223-1235.
- Chi, Y. (2009). *Development of a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ased on seligman's character strength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 H., Kim, W., & Park, S. (2010). A story of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rewarded experiences of teaching prof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9(3), 91-117.
- Cho, S., & Lee, J. (2010).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directors' and fellow teachers' social support o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29-42.
- Choi, Y., & Lee, K. (2012).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ducators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1), 395-416.
- Compton, W. C. (2007).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Diener, E., & Seligman, M.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Reports*, 13, 81-84.
- Emmons, R. A. (2004). *The psychology of gratitu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2007). *Thanks! How the new science of gratitude can make you happier*. New York: Houghton Mifflin.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redrickson, B. L. (2002). Positive emo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120-1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 K., Lee, S., & Sim, 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flow and their happiness and degre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1), 69-94.
- Ham, K., Byeon, B., & Cheon,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6), 2163-2176.
- Han, H. (2013).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nse of humor on their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J.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6), 271-287.
- Han,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feelings of happiness in preschool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adaptive resiliency and stress-coping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 Han, K. (2002). *Social psychology*. Seoul: Hakjisa.
- Han, N. (2009).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gnitive/behavioral responses in a conflict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N., & Lee, D.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Han, S. (2013). *Analysis on emotional labor by jobs*.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Heo, Y. (2009). *A study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Hong, G., & Jung, H. (2013). Effect of preschool teacher's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burnou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Childcare and Education*, 9(1), 263-280.
- Hwang, H.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7-180.
- Hwang, H., & Tak, J. (2014). The moderation role of savoring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flourishing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7-180.
- Hwang, H., Kang, H., & Tak, J. (2014). The meditating effect of positive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or and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1), 341-363.
- Hwang, H., Tak, J., & Hong, S. (2014). Impact of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3), 411-432.
- Jeon, K., & Jung, T. (2009).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5(1), 133-153.
- Jung, H. (2005). *The rela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2015).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on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H. (2012).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 ef-*

- 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among daycar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Kim, H. (2014). *An exploration on the variabl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2012).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stress coping style and ego-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3), 65-83.
- Kim, Y. (2012). *A study on innovative 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essential elements of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Y., & Lee, H. (2012). The effect of gratitude on well-being and depress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5, 19-35.
- Kim, E. (2015). *The Influence of Baby Boom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on recognition of the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and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Koo, J., & Kim, U. (2006).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trait,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1-18.
- Kook, S. (2001).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c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wak, H. (201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won, S. (2009). *Positive psychology: Scientific research on happiness*. Seoul: Hakjisa.
- Kwon, S. (2011). *Human's positive personality*. Seoul: Hakjisa.
- Kwon, S., Kim, K., & Lee, H.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177-190.
- Lasp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4), 484-493.
- Lee, H. (2001). *A study on occupational stress experienced by beginning teache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Sigmapress.
- Lee, J.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 Lee, K., & Choi, Y. (2009).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index, character strengths, and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educato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3), 215-235.
- Lee, K., Choi, Y., & Lee, K. (2012).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role perform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6), 509-523.
- Lee,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secondary school teachers' happiness index, character strength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i, B., Ma, H., Guo, Y., Xu, F., Yu, F., & Zhou, Z. (201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new approach to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1), 135-144.
- Lim, Y. (2010).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a strengths-based positive psychotherapy on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 Avey, J., B. J. Avolio, B. J., & Peterson, S. (2010). Impact of a microtraining intervention on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and perform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1), 42-67.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Noh, H. (2008). *The relation between gra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Noh, J., & Lee, M. (2005).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s of gratitude on well-being under the stres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454-455.
- Park, E. (2012).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Park, G., & Yoon, S. (2005).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life dance participation in middle-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5), 729-741.
- Park, S. (2013).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organizational membe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Kim, U., Chung, K., Lee, S., Kwon, H., & Yang, K. (2000).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94-118.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 Seligman, M. E. P. (2006). *Positive psychology*. (김인자 역). Anyang, Korea: Mulpure.
- Seligman, M. E. P., Park, N., & Peterson, C. (2004). The Values In Action(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Ricerche di Psicologia*, 27, 63-78.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 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in, J. (2007).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San Diego: Academic Press.
- Snyder, C. R., Sy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R. L. Higgins.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 행복감.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
- Van Petegem, K., Creemers, B. P. M., Rossel, Y., & Aelterman, A. (2005).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teacher behaviour and teacher wellbeing. *Journal of Classroom Interaction*, 40(2), 34-43.
- Veroff, J., Douvan, E., & Kulka, R. A. (1981). *The inner American: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Y: Basic Books.
- Wood, A. M., Froh, J. J., & Geraghty, A. W. A. (2010). Gratitude and well-being: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90-905.
- Wood, A. M., Maltby, J., Gillett, R., Linley P. A., & Joseph, S. (2008). The role of gratitud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on: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854-871.
- Wright, B. A., & Lopez, S. J. (2002). Widening the diagnostic focus: A case for including human strengths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6-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eom, J., Lee, M., Cho, H., & Kim, H. (2011).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aju: Jeongmins.
- Yoo, H. (2005). Focusing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s=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women's capital. *The Journal of Asian Women*, 44(2), 225-259.

□ Received: July 15. 2016

□ Revised: September 23. 2016

□ Accepted: October 23. 2016